

투데이 칼럼

새만금, 30년 희망고문 끝내고 국가 미래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이 한마디는 전북의 지난 30여 년을 관통하는 문장이었다. 뼈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 말은 비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외면받아온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었다고, 이제는 그 희망고문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국가적 선언으로 읽혀진다.

새만금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부의 약속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동시에 끝없이 미뤄지고 지연된 시간 그 자체였다. 새만금 개발은 1998년이면 외곽 방조제 공사가 끝나고, 2004년이면 내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은 수정되었고, 돈은 투자되지 않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사업의 이름과 방향은 여러차례 바뀌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을 말하거 어렵다.

이쯤 되면 전북도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전북도민이 요구한 것은 거창함이 아니었다

전북도민은 거창한 청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가가 시작한 국책사업을 국가답게, 다른 국책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새만금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으리라는 믿음, 그 굳센 믿음을 하나로 30년을 넘게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너무 길었다. 바다를 잃고 삶의 터전을 내주었던 군산과 부인의 어민들, 그들의 눈물 위에 조성된 땅이 바로 새만금이다. 그 위에 세월이 쌓이면서 전북도민의 환송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였다. 스스로를 향해 ‘희망고문’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게 된 이유다.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새만금이 죄가 없듯, 전북도민도 죄가 없다. 다만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내부 십자도로가 완성되었고,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도 오랜 기다림 끝에 개통되었다.

내년이면 새만금 신행만이 문을 연다. 내부 용지 매립은 아직 절반에 이르지 못했지만, 기업들의 투자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도 시작했다.

정부가 마음먹고 속도를 낸다면, 새만금은 더 이상 3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에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였고, 지금 필요한 것도 그 의지다.

지금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속도’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가로막아 온 것은 구조적인 제약이었다. 민간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개발 방식, 반복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한계, 매립을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을 지연시켜 왔다.

특히 선(先)매립과 선(先)기반시설 구축 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업은 기분이 갖춰진 곳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먼저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식일 뿐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새만금은 계속해서 ‘계획 중인 미래 로망’ 남게 된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년간 도정을 책임지며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해서 연구한 결과 새만금 전역을 규제 완화형 매가 샌드박스로 특구화하고,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을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 제안이다. 민간이 먼저 뛰어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매립과 광역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새만금 조기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하거나 과감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RE100 산업단지들을 신속히 지정하고 도로, 전력, 용수, 폐수처리 같은 기반시설은 지방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책임지고 개발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민의 것이 아니다. 새만금의 성공은 전북민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얻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업, 이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불류와 같은 현대의 신산업을 한 공간에서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의 테스트베드다.

새만금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부다.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이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의 희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가능성이냐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이제는 실행할 시간이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한 세대가 지나갔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될 때 청년이었던 이들은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의 자녀 세대가 또다시 ‘연젠가’는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 결단과 실행력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이 논쟁과 계획 속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 현장에서 완성되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희망고문’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새만금은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전북도민이 30년을 기다린 그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은 희망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희망을 실현해야 할 시간이다.

그간 30 년이 넘도록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미완이었던 새만금 개발을 완성하는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역사에 길이 남도록 기억되기를 전북도민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사설

제16회 소독서화 회원전

제16회 소독서화 회원전이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소독서화회는 지난 2006년 11월 제1회 전시회를 가진 뒤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소독회(素墨會) 회원들은 문인화(文人畵)를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모두 소당(素堂) 김연익(金蓮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다. 이번 전시에는 소당의 제자 박병래 회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닦은 필력을 맘껏 선보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회원전을 연 소독회원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순수 예술인들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났다.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비롯해 문인화, 산수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걸어가는 겨울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소당 김연익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외형미(外形美)보다는 내면세계(內面世界)를 더욱 다져 나가려는 진정한 문인화가(文人畫家)로서 한 단계 성숙된 자각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먹을 잡고 비우는 마음으로 붓을 들라.”고 말한다. 소당은 이번 소독회전에서 찬조출품으로 ‘암향(暗香)’이란 제목의 작품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다. ‘어두운 밤하늘을 달빛 아래 은은한 향기가 떠나니며 진동한다’는 의미다.

한편 소당 김연익은 전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 이사, 대한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의예술회 이사, 심사, 운영 그리고 은고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사, 운영 심사로 활약하고 있다.

익산 남성과, 고교 남자배구 최강 재입증

전북 익산 남성이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18세 이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구 명문 전북 익산 남성이 고등학교가 전국 최강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남성은 이날 부산 동래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 18세 이하 결승전에서 경북 대표 현일고를 3대 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남성은 강력한 서브와 조직적인 수비, 빠른 공격 전개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세트스코어 1대1 상황에서 맞이한 3세트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으나 고비마다 남성의 블로킹과 공격이 성공하면서 세트를 가져왔다. 남성은 이어진 4세트에서는 상대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남성은 춘계중고연맹전(3월)과 종별선수권대회(5월), 제58회 대통령배 전북중고배구대회(8월)에 이어 올해에만 4관왕을 차지하며 고교 배구 최강임을 증명했다.

박종우 남성과 교장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며 “이번 우승은 학교의 현신적인 지도와 전북교육청의 세심한 지원이 함께한 결과다. 전북 학생 체육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강양원 전북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은 “남성고 배구부의 금메달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다”며 “문예체건강과는 앞으로도 학교운동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제언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같은 끔찍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재범방지교육 등 단계별로 우리 사회의 비어있는 곳을 차분히 점검해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성범죄 예방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돼야

유용하게 협력해 진료에 임하고 있어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도 전문가 양성 필요하다. 또한, 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성폭력적 경향이나 변태성욕적 경향이 성격화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져야 효과적일 수 있으므

로 범행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 예방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아동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일반적인 범죄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적인 범죄유혹 상황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순간적인 범죄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다양한 개입·치료가 위치추적 전자감시와 병행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진제 부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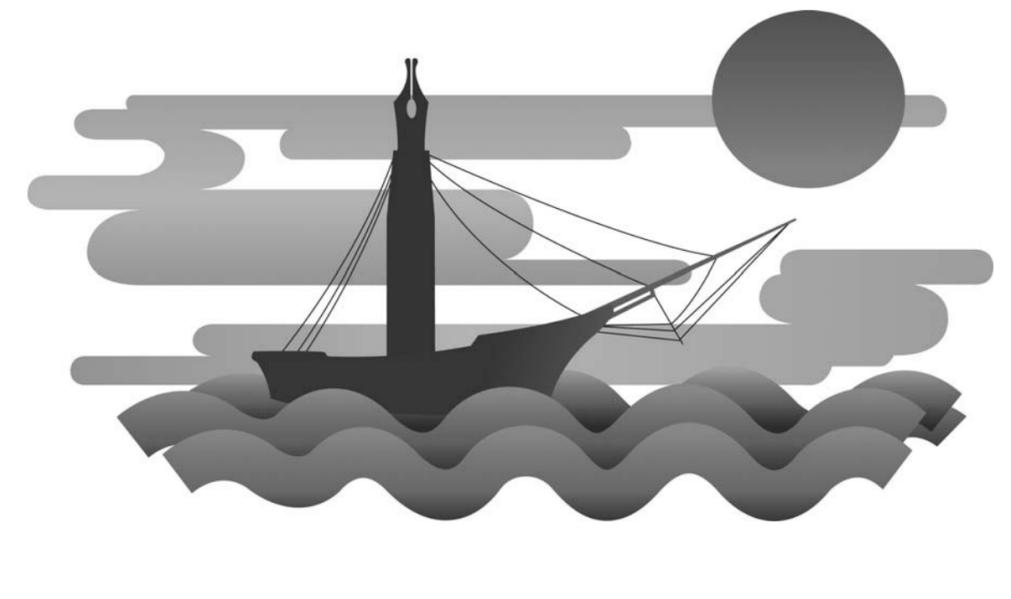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